

李商隱 <燕臺詩>의 '환상성'*

梁恩鮮**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연대시>에 대한 기존의 이해
 - (2) <연대시>의 내용 분석
 - (3) <연대시> 환상성의 구성 요소
 - 1) 詩題의 애매성
 - 2) 시공간 경계의 모호성
 - 3) 이미지의 다중성
 - 4) 도교의 환상세계
3. 결론

1. 서론

중국 詩史에서 애정시를 대표하는 이상은은 몽롱한 분위기의 '無題詩'류 시로 유명하다. 그는 일생동안 일관되게 유희주의를 추구하고 애매모호한 시를 써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인 '몽롱함' 그 자체를 통해 이상은의 시작 경향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중국 전통적인 시 해석방법인 전기생평주의적 관점으로 시를 작가의 생애 및 사상과 엮어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옛 작품을 전기생평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 이상은의 시에서 '몽롱함'을 자아내는 표현방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은의 시 중에 몽롱함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燕臺詩>가 있다. <연대시>는 이상은의 생애 초기에 편년되어 있는 몽롱한 분위기를 대표하는 시로, 그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시가 애정시인가, 현실을 반영한 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착안하여 왔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몽롱한' 분위기 그 자체에 있다. 지금까지는 원관념을 찾고 기표의 움직임에 포착하려는 시 읽기의 관습으로 인해 '환상'적인 요소가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애매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애정시라고 단정하기보다 '환상'적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몽롱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해 보고, 晚唐代 문학의 '환상성'이 <연대시>에 어떠한 형식으로 도입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연대시>에 대한 기존의 이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과 심리학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기호'이다.¹⁾ 이 하나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 시인은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의미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시인의 의미작용은 수신자 쪽에서 일어난 의미작용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시를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연대시>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행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시를 애정시나 막부에 몸을 의탁할 때의 감정을 읊은 시로 단

* 이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高麗大 中文科 博士課程.

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8, 12쪽.

정하고 있다.

이상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清代의 馮浩, 程夢星, 姚培謙 등의 학자들은 이를 애정시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상은의 시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낸 풍호의 견해가 불 만하다. 그는 이 시를 <柳枝>五首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연대시>의 바로 뒤에 편년되어²⁾ 유지와의 인연에 대해 기록해 둔 <유지>오수와 그 序文이다. 실제로 기록상으로 알 수 있는 이 시의 최초 독자는 이상은의 시 <유지>의 서문에 등장하는 '柳枝'이다. <유지>의 서문에는 '연대시'가 등장하는데, 이상은의 시 중에 '연대'로 된 제목은 <연대시>가 유일하다. 따라서 <유지>에 등장하는 시가 여기에서 말하는 <연대시>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음악에 조예가 있던 유지가³⁾ 연대시를 듣고 '누구에게 이런 시정이 있나요'라고 물은 후 시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아,⁴⁾ 시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유지는 이 시를 '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일 뿐이다. 유지는 '密房'이나 '後堂' 등의 몇몇 단편적인 시어와 음률만으로 시를 이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연대시의 本事를 이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정시를 주장하는 선행 연구자들은 대부분 유지와의 이 일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풍호는 계절별로 각각 '幽, 憶, 怨, 斷'으로 귀결시킬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막부를 빗대어 사용하는 '연대'를 이상은이 제목으로 들고 있는

2) 劉學鍇·余恕誠의 《李商隱詩歌集解》(中華書局, 2004)의 견해에 의거함.

3) <柳枝>五首의 서문: 그녀는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화장하고 머리 묶는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밖으로 나가 나뭇잎 피리를 불고 꽃술을 맛보거나, 현악기를 고르고 관악기를 짚어 하늘과 바다에 마음 불고 파도치는 듯한 악곡과 아련하게 떠올리고 원한으로 가슴 아픈 듯한 음악을 연주했다.(生十七年, 塗妝綰髻, 未嘗竟, 已復起去, 吹葉嚼蕊, 調絲絃管, 作天涯風濤之曲, 幽憶怨斷之音.)

4) 위의 글: 어느 날 봄이 무르익어갈 즈음 양산이 유지의 남쪽 버드나무 아래쭈에서 말에서 내려 내가 지은 <燕臺詩>를 읊었는데, 유지가 놀라며 물었다. '누구에게 이런 詩情이 있지요? 누가 이 시를 지었나요?' 그러자 양산이 일러주었다. '이건 우리 마을 젊은 중재가 지은 거라오.' 유지가 손으로 긴 띠를 끊어 양산에게 매주며 동생에게 건네 시를 달라고 청했다.(他日春曾陰, 讓山下馬柳枝南柳下, 詠余燕臺詩, 柳枝驚問, '誰人有此? 誰人爲是?' 讓山謂曰, '此吾里中少年叔耳.' 柳枝手斷長帶, 結讓山爲贈叔乞詩.)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막부를 빌어 막부의 후실을 읊었다고 하고, 선녀와 관련된 고사가 많다 하여 <연대시>의 여인을 여도사라고 단정하고 있다.⁵⁾ 이외에 정몽성은 이 시가 사계절로 나뉜 것은 <子夜四時歌>와 같지만 그 격조가 다르다고 하면서, 깊은 의미가 없는 '艷曲'이라 하였다.⁶⁾

또 이와는 반대로 紀昀, 張采田, 姜炳璋과 같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제각각 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기운은 제목의 '연대'로 보아 이 시가 막부에서 뜻을 기탁한 바일 것이라고 하였고,⁷⁾ 姜炳璋은 아녀자가 입을 그리 워하는 것에 기탁하여 李德裕를 애도하여 지은 시라고 하였다.⁸⁾ 또 張采田은 楊嗣復을 위해 지은 것이라고도 하였다.⁹⁾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논거는 바로 제목의 '연대'이다. 연대가 인재를 불러 모으는 의미에서 당대의 사람들이 막부를 비유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소재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劉學鍇, 葉嘉瑩과 Stephen Owen과 같은 현대 학자들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유학개는 기운의 설에 근거가 부족하고, 장채전과 같이 양사복을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면 상인의 여식인 유지가 微言大義를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논거로 들어 반박하면서, 기본적으로 풍호의 막부의 후실을 읊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¹⁰⁾ 한편 葉嘉瑩은 이 시에 드러나는 장소와 시간은 모두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제목의 연대는 知己를 만나지 못한 데 대한 비애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 스티븐 오웬은 이 시가 李賀의 몽롱한 분위기의 시

5) 馮浩, 《玉谿生詩詳注補》: 今細玩四章, 若統以幽、憶、怨、斷味之, 頗饒趣味。(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101쪽에서 재인용).

馮浩, 《玉谿生詩集箋注》: 燕臺, 唐人慣以言使府, 必使府後房人也. 參之柳枝序, 則此在前, 其爲學仙玉陽東時有所戀於女冠歟? …… 以篇中多引仙女事, 故知女冠.

6) 程夢星, 《重訂李義山詩集箋注》: 四時乃子夜四時歌之義而變其格調者, 詩無深意, 但艷曲耳。(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101쪽에서 재인용).

7) 紀昀, 《玉谿生詩說》: 以燕臺爲題, 知爲幕府託意之作, 非艷詞也.

8) 姜炳璋, 《選玉谿詩生補說》: 此託爲婦人哀其君子之詞, 蓋哭李贊皇之作也。(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105쪽에서 재인용).

9) 張采田, 《玉谿生年譜會箋》: 四詩爲楊嗣復作也.

10) 劉學鍇, 앞의 책, 109-110쪽.

11) 葉嘉瑩, 《迦陵論詩叢考》, 中華書局, 2005, 151-153쪽.

를 배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녀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중국 전통의 애정시(erotic poetry)라고 하였다.¹²⁾ 이들 또한 이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애정시인가 막부를 기탁한 시인가 하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시적 언어는 주로 개념화나 구체화가 쉽지 않은 감정이나 감성적 요소에 의해 수행되므로,¹³⁾ 과학적 언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성을 중심으로 시를 평가하려는 태도는 시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작품의 평가는 독자가 자신의 정보, 세계관, 무의식적 투시를 작품과 어떻게 분리하고 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 문학사학의 관점에서 시 작품이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옹호되거나 비판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燕臺詩>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견해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대시>의 내용 분석

楚辭의 영향을 받은 張衡의 <四愁詩>가 7언 古詩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이 <연대시> 또한 장편의 7언 古詩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로 깊은 뜻을 의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屈原의 離騷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형식은 장안의 여인이 원정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린 <子夜四時歌>가 사계절을 구분하여 묘사한 형식과 같이 春·夏·秋·冬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계절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은의 시는 화자가 여성적이기는 하지만(혹은 여성이거나) 시에 드러난 주제는 명확하지 않다. 내용을 살펴보자.

- | | |
|--------------|-----------------------------|
| 1. 風光冉冉東西陌, | 봄빛 유유히 동서로 뻗은 길 비추니 |
| 2. 幾日嬌魂尋不得. | 머칠 지나도록 아리따운 혼령 찾지 못하였네. |
| 3. 蜜房羽客類芳心, | 향기로운 벌꿀 애뜻한 내 맘과 같으니 |
| 4. 冶葉倡條徧相識. | 꽃이 있는 곳을 알겠지. |
| 5. 暖薰輝暉桃樹西, | 따스한 봄빛 뉘엿뉘엿 복숭아나무 서편에서 |
| 6. 高巖立共桃巖齊. | 풍성히 쪽진 머리가 복숭아꽃과 함께 나란한 듯. |
| 7. 雄龍雌鳳杳何許? | 숫용과 암봉황은 아득히 어디메뇨? |
| 8. 絮亂絲繁天亦迷. | 버들개지 어지러이 분분하고 하늘도 흐릿하다. |
| 9. 醉起微陽若初曙, | 취기에 일어나니 저녁 해는 동트는 서광인 듯, |
| 10. 映簾夢斷聞殘語. | 주렴을 비추니 꿈에서 깨어 꿈속의 말 들리는 듯. |
| 11. 愁將鐵網罥珊瑚, | 시름겨워 철망으로 산호를 캐고자 하나, |
| 12. 海闊天翻迷處所. | 바다는 끝없고 하늘은 뒤집혀 있을 곳 잃었네. |
| 13. 衣帶無情有寬窄, | 허리띠는 무정하게도 헐거워져만 가니 |
| 14. 春煙自碧秋霜白. | 푸른 봄 안개가 절로 하얀 가을 서리인 듯. |
| 15. 研丹擘石天不知, | 단사를 연마하고 돌을 쪼갰다한들 하늘이 몰라주니 |
| 16. 願得天牢鑿魄魄. | 원컨대 천뇌를 얻어 원혼을 가두어두고저. |
| 17. 夾羅委篋單綃起, | 겹옷은 상자에 넣어두고 홑옷 꺼내 입으니 |
| 18. 香肌冷襯瑤瑤珮. | 향기로운 살갓에 차가운 옷 쟁쟁거리는 쾌옥소리. |
| 19. 今日東風自不勝, | 이제 봄바람 제풀에 못 이기고, |
| 20. 化作幽光入西海. | 그윽한 빛이 되어 서해로 사라진다. |

<燕臺詩>의 첫 번째 단락인 [春]은 그 소주제와 알맞게 언제든 당을 수 있는 듯이 눈앞에 펼쳐지는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봄날의 생동적인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1-4구는 눈으로 직접 본 듯한 봄날의 광경을 묘사하였으나 이상은의 눈에 보이는 봄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 아니다. 이상은의 시에 등장하는 '봄'은 그보다는 차가움과 쇠잔함을 연상케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상실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¹⁴⁾ 5-8구는 꽃이 만발한 복숭아나무가 가득한 봄날의 경치를 '따스하다(暖薰)'고 묘사하면서도, '아득히 어디메뇨(杳何許)'라는 말로 갈망하는 대상에 이를 수 없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9-12구에서 화자는 주렴을 비추는 석양을 보며 얻고자 하는 '산호'를 끝내 얻

12) Stephen Owen, *The Late Tang*, Harvard University, 2006, 180쪽.

13) 정상균, <문예미학>, 한국문화사, 2002, 57쪽.

14) 김준연, <李商隱 詩에 보이는 '봄' 이미지 연구>, <中國文學> 제4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6.

지 못하여 또다시 시름에 잠긴다. 특히 9, 10구에서 해질녘의 '꿈'을 등장시켜 몽롱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3-16구에서는 시름 속에서 허리띠가 헐거워지고 세월만 헛되이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끼면서, 그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지 않아 天牢를 얻어 자신의 원통한 녀를 가두고 싶다는 것으로, 극에 달한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17-20구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는 날씨를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대상이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서해로 사라진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갈망하던 대상이 사라졌음을 드러냈다.

[춘]의 전체적인 배경과 이미지를 요약하자면 14구의 '봄 안개(春煙)'라 할 수 있다. '봄 안개'로 인해 눈의 초점이 흐릿하고 정신마저 몽롱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읽는 독자도 몽롱한 상태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안목으로 시를 바라보아야만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하며 [夏]를 보자.

- | | |
|--------------|-------------------------------|
| 1. 前閣雨簾愁不卷, | 앞 누각 비 내리는 듯 주렴은 근심스럽게 걷히지 않고 |
| 2. 後堂芳樹陰陰見, | 뒤뜰에 꽃나무는 무성해 어두침침해 보이는데 |
| 3. 石城景物類黃泉, | 석성의 경치 黃泉과 같고 |
| 4. 夜半行郎空柘彈, | 한밤에 潘郎은 공연히 새총질을 해대며 다닌다. |
| 5. 綾扇喚風聞闖天, | 비단 부채가 천상의 바람 부르는 듯 |
| 6. 輕帷翠幕波淵旋, | 연한 비취빛 휘장이 물결 감아 도는 듯. |
| 7. 蜀魂寂寞有伴未? | 촉혼 쓸쓸히 짝을 찾았는가? |
| 8. 幾夜瘴花開木棉, | 몇 밤 지나면 남방의 꽃에 목화 피겠지. |
| 9. 桂宮流影光難取, | 달빛 떠도니 그 빛 잡기 어려운데 |
| 10. 媽薰蘭破輕輕語, | 아리따운 난꽃 피어 살며시 속삭인다. |
| 11. 直教銀漢墮懷中, | 곧장 은하수를 내 품 속에 떨어뜨려 |
| 12. 未遣星妃鑣來去, | 직녀성이 오래도록 오가게 하지 말았으면. |
| 13. 濁水清波何異源? | 탁한 물 맑은 물결 어찌 근원이 다른가? |
| 14. 濟河水清黃河渾, | 제하수는 맑고 황하수는 혼탁하니 |
| 15. 安得薄霧起細裙, | 어찌 薄霧 속에서 담황색 치마 입을 그대 일으켜 |
| 16. 手接雲輶呼天君? | 손수 구름수레를 영접하고 나 그대를 부를 수 있을까? |

[춘]에서 [하]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1구의 '비(雨)'이다. 이상은의 시에서 '봄'은 '비'와 함께 등장하여 슬픔을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비는 실제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아래로 늘어진 주렴을 형용하는 말이다. 실제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1-4구는 어두운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여름 역시 밝지는 않다. 특히 4구에 등장하는 潘郎의 잘생긴 외모를 어두컴컴한 한밤중에는 봐줄 이가 없어 '공연히 새총질을 해댄다(空柘彈)'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볼 만하다. 이상은은 평소에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를 갈망하였고, 知己를 만나지 못한 절망감을 여러 시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도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다. 5-8구에서는 부채와 비취빛 휘장 등으로 여름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7구의 '蜀魂'은 나라를 잃은 원통한 혼백을 가리키는데, [춘]의 '冤魂'과 같은 혼백으로 보인다. '蜀魂'에게 짝(伴)을 찾았냐고 묻고 있는 것은 시인 또한 갈망하는 바가 있으나 결국 얻지 못한 데 대한 동정심이 드러난 것으로, 3, 4구에 이어 자신을 알아봐 주는 짝을 찾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9-12구에서는 잡기 어려운 빛이나 은하수와 같이 곁에 두고 싶지만 둘 수 없는 대상(여기에서는 직녀성)을 오래도록 곁에 두려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마음은 '곧장(直)'과 '-하지 말았으면(未)'이라는 허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도 곧 현실로 돌아와 공허한 것으로 바뀌고 만다. 13, 14구는 '탁함(濁)'과 '맑음(清)', '濟河'와 '黃河'를 대비시켜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다시 15구의 '어찌 -할 수 있을까(安得)'라는 허사를 통해 화자가 갈망하는 대상을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으로 변한다. [하] 또한 [춘]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환상(이상/갈망하는 대상)사이에서 갈등하고 좌절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 | |
|-------------|-----------------------------|
| 1. 月浪當天宇溼, | 달빛이 하늘에 가로 퍼지니 온 천하가 젖고 |
| 2. 涼蟾落盡疎星入, | 가을 달 다 떨어지니 듬성듬성한 별들이 들어간다. |
| 3. 雲屏不動掩孤嘯, | 운모 병풍은 흔들리지 않고 고독한 눈살을 감싸고 |
| 4. 西樓一夜風箏急, | 서쪽 누각에서는 밤새도록 풍쟁이 급하게 울어댄다. |

- | | |
|--------------|-------------------------------------|
| 5. 欲織相思花寄遠. | 그리워하는 마음 짜서 꽃으로 멀리 보내고 싶지만 |
| 6. 終日相思却相怨. | 온종일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네. |
| 7. 但聞北斗聲迴環. | 북두칠성 운행하는 소리만 들릴 뿐 |
| 8. 不見長河水清淺. | 은하수 맑고 얇은 것은 보이지 않네. |
| 9. 金魚鑣斷紅桂春. | 물고기 모양 자물쇠가 붉은 계수나무의 봄을 가두었고 |
| 10. 古時塵滿鴛鴦茵. | 옛날 먼지가 원앙 요에 가득 찼네. |
| 11. 堪悲小苑作長道. | 작은 정원이 대로가 된 것은 슬퍼할 만하지만 |
| 12. 玉樹未憐亡國人. | 옥수후정화의 나라 잃은 사람은 연민하지 않는다. |
| 13. 瑤瑟愴情藏楚弄. | 비파의 평화로운 소리는 초나라 곡조를 머금고 |
| 14. 越羅冷薄金泥重. | 월나라 비단은 차갑고 가벼운데 금장식이 무겁다. |
| 15. 簾鉤鸚鵡夜驚霜. | 부리가 구부러진 앵무새가 밤 서리에 놀라 |
| 16. 喚起南雲繞雲夢. | 남쪽 구름이 운몽 휘감는 것을 깨운다. |
| 17. 雙瑩丁丁聯尺素. | 짚랑거리는 쌍쌍의 옥 귀걸이를 담은 서신은 |
| 18. 內記湘川相識處. | 안에 湘川에서 만났던 곳을 기록하고 있네. |
| 19. 歌唇一世衛雨看. | 노래하던 입술로 평생 동안 눈물 머금고 보던마는 |
| 20. 可惜馨香手中故. | 애석하도다. (서신의)아름다운 향기가 손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

‘가을’에 연상되는 ‘달’이 [秋]의 주된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1-4구에서는 서쪽에서 뜨는 가을 달을 중심으로 고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8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어는 ‘멀리(遠)’이다. 대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소리만이 들리고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리감으로 인해 그리워하는 마음조차 보낼 수 없어 그리워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다. 9-12구는 과거에서 현재로의 변화를 묘사하면서 ‘슬프다(悲)’는 단어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9구의 ‘붉은 계수나무의 봄’이라는 시어는 실제로 남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색일 뿐이다. 또한 11구와 12구에서는 화려했던 장소가 길로 변해버린 것은 슬프지만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장본인에 대해서는 연민조차 않는다는 것을 통해 이상은의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13-16구에서는 초나라의 곡조와 차갑고 무거운 이미지를 통해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앵무새의 울음소리가 운몽을 깨운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다. 17-20구에서는 갈망하는 대상과 ‘서신’이라는 매

개체로 대상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손 안에서 향기마저 사라져버렸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 다른 계절과 달리 [추]에서는 청각적인 시어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4구의 풍쟁과, 7구의 북두칠성이 운행하는 소리, 13구의 비파 소리, 15구의 앵무새 울음소리, 17구의 짚랑거리는 귀걸이 소리 등이다. 이들은 모두 깊어가는 조용한 가을밤에 쓸쓸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추]에서도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에서 ‘거리감(遠)’을 느끼며 ‘슬퍼하는(悲)’ 화자를 볼 수 있다.

- | | |
|--------------|-------------------------------|
| 1. 天東日出天西下. |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
| 2. 雌孤狐飛女龍寡. | 암봉황새 외로이 날고 암용도 혼자구나. |
| 3. 青溪白石不相望. | 청계의 아가씨와 백석랑 서로 만나지 못하니. |
| 4. 堂中遠甚蒼梧野. | 사랑채가 창오의 들녘보다 더 멀도다. |
| 5. 凍壁霜華交隱起. | 얼어붙은 벽에는 서리꽃 얽혀 맺히기 시작하더니 |
| 6. 芳根中斷香心死. | 향기 나는 뿌리가 중간에서 잘리고 향심도 사라졌다. |
| 7. 浪乘畫舸憶蟾蜍. | 부질없이 화려한 배 타고 달을 떠올려 보지만 |
| 8. 月娥未必嬋娟子. | 월아도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로다. |
| 9. 楚管蠻絃愁一概. | 초나라 피리와 남방 거문고 소리는 수심에 젖게 할 뿐 |
| 10. 空城罷舞腰支在. | 빈 성에서 춤은 끝났으나 허리는 남아있네. |
| 11. 當時歡向掌中銷. | 당시의 즐거움은 손바닥에서 사라졌거늘 |
| 12. 桃葉桃根雙姐妹. | 도엽과 도근은 한 자매였지. |
| 13. 破巘倭墮凌朝寒. | 머리 풀어 늘어뜨리고 새벽 한기 가까워지는데, |
| 14. 白玉燕釵黃金蟬. | 백옥의 제비 문양 비녀와 황금빛 매미 장식. |
| 15. 風車雨馬不持去. | 바람을 가마로, 비를 말로 삼아서도 갈 수 없나니, |
| 16. 蠟燭啼紅怨天曙. | 붉게 흐느끼는 촛불 아래 날 밝는 것이 원망스럽네. |

[冬]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밤에서 새벽으로 옮겨가고 있다. 1-4구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암봉황새나 암용, 청계의 아가씨와 백석랑이 모두 혼자인 것을 통해 시 전반에 나오는 ‘멀다’는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다. 5-8구는 얼어붙은 벽과 서리꽃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면서 동시에 ‘향기 나는 뿌리’나 ‘향심’도 겨울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허무함 또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월아도 아름답지

않다고 하여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시 전반에 흘렀던 절망감이 체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9-12구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피리와 거문고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오는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詩詞에서 일반적으로 도엽과 도근은 이별의 상징으로 사용된다.¹⁵⁾ 여기에서는 화려했던 지난날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雙'이라는 단어로 보아 결국 둘 모두를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5-8구와 마찬가지로 화려했던 지난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못 이겨 모두 사라져버린 데 대한 허무함이다. 13-16구에서는 변하지 않는 '옥'과 '금', '백'과 '황'의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머리가 형클어진' 초라한 현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바람과 비를 타고 간다는, 초현실적인 발상으로도 갈망하는 대상에 이를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만을 한없이 원망하고 있다. 이렇듯 [동]은 사계절 중에 가장 절망적인 분위기가 짙은 단락이다.

이상에서 <연대시>를 계절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춘]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봄이 아닌 안개 가득한 봄 경치에서 느낀 상실감을, [하]에서는 여름밤의 어두운 배경에서 느낀 절망감을, [추]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밤 그리는 대상의 향기마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에서는 겨울날 밝아오는 새벽녘에 느끼는 원망스러움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사계절로 나눈 소재목만을 보면 계절에 따라 각각 그 분위기가 다를 듯하지만, 실제로 시를 살펴보면 계절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멀디 먼(遠)' 공간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의 감정은 '비에(悲)'와 '원망(怨)'으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구분된 소재목과도 부합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이 시를 다 읽고 난 후 대부분의 독자들은 '낯설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독자의 재구가 필요한 시에서 독자는 화자의 의미작용을 짐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하려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를 접할 때 수용자는 낯선 이미지에 대한 합리화의 좌절과 실패를 맞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연대시>에는 독자를 당혹케 하는 '낯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연대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낯선 요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3) <연대시> 환상성의 구성 요소

이상적인 시어들을 일탈적 방법으로 결합시킬 때 환상적인 내용이 출현한다. 즉, 관습적으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사 구조를 결합할 때 그 시어가 지시하는 사물들이 원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전혀 이질적인 맥락 내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내용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환상'이 <연대시>에서는 어떤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詩題의 애매성

<연대시>의 '환상'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로 詩題의 애매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시에서 일반적으로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연대시>와 비슷한 시기에 편년되어 있는 시를 살펴보자.

花明柳暗繞天愁, 꽃 만발하고 버드나무 길게 드리웠건만 하늘에는 수심만 가득하여
上盡重城更上樓, 높은 성을 끝까지 오르고 다시 누각에 올랐다네.
欲問孤鴻向何處, 외로운 기러기 어디로 향하는지 물어보고 싶구나,
不知身世自悠悠, 신세도 알 길 없이 절로 유유자적이니.

이 시의 제목은 <夕陽樓에서(夕陽樓)>이다. 먼저 제목만 보아도 석양루를 보고 느낀 심정을 읊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의 내용은 '제목에 부합(切題)'된다.

15) 葉嘉瑩, 앞의 책, 193쪽.

하지만 <연대시>는 다르다. 제목의 '연대'와 관련된 내용이 시에는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아 전혀 무관한 내용처럼 보인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이견이 분분한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제목의 '燕臺'는 본래 戰國시대 燕나라 昭王이 현명한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 黃金으로 지은 누대로, '黃金臺', '金臺' 또는 '燕昭臺'라고 부르기도 하는 역사적으로 그 전고가 분명한 누대의 명칭이다. 그렇다면 이상은은 왜 이 제목으로 시를 쓴 것일까? 또 제목과 상관없는 시를 썼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唐代 시인들에게 있어서의 '연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상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杜甫와 杜牧, 李賀의 시를 살펴보자.

紫氣關臨天地闊, 黃金臺貯俊賢多.	상서로운 기운 가까워지고 천지가 광활하니 黃金臺 쌓아 훌륭한 인재들 많도다. ¹⁶⁾
小捷風流已俊才, 便將紅粉作金臺.	風流를 타고 이미 俊才가 되었으니, 붉은 분으로 金臺를 만들지니. ¹⁷⁾
燕臺上客意何如, 四五年來漸漸疏.	燕臺 귀빈의 마음은 어떠하오? 사오년 동안 점점 소원해졌구료. ¹⁸⁾
內學無慚古所難, 燕臺遙想拂塵冠.	안 사람을 천거하여 부끄러울 일 없기는 예로부터 어 려웠던 바, 燕臺에서는 멀리 冠의 먼지 터는 것 그리네. ¹⁹⁾
報君黃金臺上意, 提攜玉龍爲君死.	黃金臺에서 인재 모으신 군주의 뜻에 보답하고자 玉龍검 들고 군주 위해 죽을지니. ²⁰⁾

16) 杜甫, <承聞河北諸道節度入朝歡喜口號絕句十>二首 其二.
17) 杜牧, <送薛氈>二首 其二.
18) 杜牧, <寄浙西李判官>.
19) 杜牧, <賀崔大夫崔正字>.
20) 李賀, <雁門太守行>.

이들은 대부분 애정의 대상을 다루기 위한 소재로서가 아니라, 현명한 인재를 불러 모으던 戰國시대 燕나라 昭王의 연대의 의미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상호텍스트적 방법의 도움을 빌린다면 이상은의 다른 시에서 사용된 '연대'의 의미 또한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은의 <燕臺詩>를 제외한 600여 수의 시 중에 '연대'는 모두 4번 등장한다.

鄭驛來雖及, 燕臺哭不聞. 夜歸碣石館, 朝上黃金臺.	鄭驛으로의 부르심에는 맞추었으나 燕臺에서의 곡소리는 듣지 못하게 되었네. ²¹⁾ 밤에 碣石館에 돌아와 아침에 黃金臺에 오른다. ²²⁾
此時聞有燕昭臺, 挺身東望心眼開.	당시에 燕昭臺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몸을 내밀어 동쪽을 바라보니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²³⁾
長吟遠下燕臺去, 唯有衣香染未銷.	길게 읊조리고 멀리 연대 아래로 떠나니 오직 옷의 향기만 남아 사라지지 않네. ²⁴⁾

이상은의 시에서도 '연대'가 막부의 후실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혹자는 唐代에는 '燕臺'를 막부의 후실에 빗대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이상은이 '연대'를 막부의 후실에 빗대어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시들처럼 제목과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용과 무관해 보이는 제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스티븐 오웬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詩題(title)는 시의 '배경 또는 문맥(語境, context)'으로 볼 수 있으며, 제목을 알고 있을 경우 제목만으로 시의 일부뿐 아니라 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

21) <自南山北歸經分水嶺>.
22) <戲題樞言草閣三十二韻>.
23) <偶成轉韻七十二句贈四同舍>.
24) <梓州罷飲寄同舍>.

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는 분명하고 뻔한(self-evident) 의미 사이에서 논쟁을 빚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티븐 오웬은 애매한 詩題를 통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보다 '애매한 텍스트(indeterminate text)' 자체로 돌아가서 가능한 다양한 해석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²⁵⁾ 요컨대 애매한 詩題보다 그 내용의 '애매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2) 시공간 경계의 모호성

둘째는 독자들에게 이상은의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跳躍性을 들 수 있다. 晚唐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기소설에서 환상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환상성을 매개로 시간성의 극복과 공간성의 해체를 시도하여 인간의 유한성(한계)을 증명한 것처럼,²⁶⁾ 이상은 시에서의 '환상성'은 도약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대시>에서의 도약성은 '시공간 경계의 모호함'에서 온다. 환상 충동은 모방 충동에서 온 것으로, 환상적 분위기는 결코 비현실적인 것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²⁷⁾ 이 시에 사용된 시어 중에도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없다. 다만 현실적인 시어들이 결합하여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먼저 시에 드러난 시간적인 배경으로 계절적인 것과 과거·현재·미래를 들 수 있다.

春煙自碧秋霜白.	푸른 봄 안개가 절로 하얀 가을 서리인 듯. ([春])
夾羅委篋單綃起.	겹옷은 상자에 넣어두고 홑옷 꺼내 입으니.
香肌冷襯淨瑤珮.	향기로운 살갗에 차가운 옷 쟁쟁거리는 패옥소리. ([夏])

蜀魂寂寞有伴未?	촉혼(봄에) 쓸쓸히 짝을 찾았는가?
幾夜瘴花開木棉.	몇 밤 지나면 남방의 꽃에 목화 피겠지. ([夏])

이상은 계절적인 배경이나, 그 경계가 모호하다. 14는 분명 [봄]인데도 봄 안개가 하얀 가을 서리 같다고 하였으며, 홑옷을 꺼내 입는 날씨에도 옷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 [여름]에 봄과 관련된 촉혼을 언급하면서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현실이 아니라 작자의 감정과 연관된 '환상'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계절과 관련된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중국 시의 전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봄은 꽃, 여름은 숲, 가을은 낙엽, 겨울은 먼 산 등과 연결되어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연대시>에서 사계절 중 특히 봄과 여름은 모두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계절적 특징이 아니다.

雄龍雌鳳杳何許?	숫용과 암봉황은 아득히 어디메뇨?
絮亂絲繁天亦迷.	버들개지 어지러이 분분하고 하늘도 흐릿하다. ([春])
石城景物類黃泉,	석성의 경치 黃泉과 같고
夜半行郎空柘彈.	한밤에 潘郎은 공연히 새충질을 해대며 다닌다. ([夏])

<연대시>의 봄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봄이 아니라 곧 지나가버릴 '봄'이며, 갓 피어난 꽃 또한 곧 저버릴 '꽃'으로, '傷春'의 분위기가 강하다. 또 여름의 숲은 무성하여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황천과 같이 어두침침하여 화자의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는, 다소 거리감 있는 자연일 뿐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미지로부터의 일탈이 <연대시>의 '환상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를 보자.

金魚鑊斷紅桂春,	물고기 모양 자물쇠가 붉은 계수나무의 봄을 가두었고
古時塵滿鴛鴦茵.	옛날 먼지가 원앙 요에 가득 찼네.

25) Stephen Owen, 앞의 책, 350쪽.
 26) 정규식, <나말여초 전기문학의 환상성과 문학적 형상화- '首插石柎'과 '寶開'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20집, 동양한학회, 2004.
 27)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33쪽.

堪悲小苑作長道, 작은 정원이 대로가 된 것은 슬퍼할 만하지만
玉樹未憐亡國人. 옥수후정화의 나라 잃은 사람은 연민하지 않는다. ((秋))

歌唇一世銜雨看, 노래하던 입술로 평생 동안 눈물 머금고 보련마는
可惜馨香手中故. 애석하다. (서신의)아름다운 향기가 손 안에서 사라
지는 것이. ((秋))

楚管蠻絃愁一概, 초나라 피리와 남방 거문고 소리는 수심에 젖게 할 뿐
空城罷舞腰支在. 빈 성에서 춤은 끝났으나 허리는 남아 있네.
當時歡向掌中銷, 당시의 즐거움은 손바닥에서 사라졌거늘
桃葉桃根雙姐妹. 도엽과 도근은 한 자매였지. ((冬))

이상의 구절에는 시간상으로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묘사는 현재의 쓸쓸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과거·현재·미래가 순서에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독자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리화의 실패에서 오는 당혹감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사계절을 구분하고 시간적 배경을 두드러지게 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임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 배경으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면, 공간적 배경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을까? <연대시>에는 공간적 배경으로 남과 북의 방향, 하늘, 바다 등의 자연적인 것이 두드러진다.

石城景物類黃泉, 석성의 경치 黃泉과 같고

幾夜瘴花開木棉, 몇 밤 지나면 남방의 꽃에 목화 피겠지. ((夏))

玉樹未憐亡國人, 옥수후정화의 나라 잃은 사람은 연민하지 않는다.

喚起南雲繞雲夢, 남쪽 구름이 운몽 휘감는 것을 깨운다.

內記湘川相識處, 안에 湘川에서 만났던 곳을 기록하고 있네. ((秋))

青溪白石不相望, 청계의 아가씨와 백석랑 서로 만나지 못하니,

楚管蠻絃愁一概, 초나라 피리와 남방 거문고 소리는 수심에 젖게 할 뿐. ((冬))

위에서 예로 든 구절은 모두 남방과 관련되어 있다. 시에 북방과 관련된 시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북방을 가리키는 시어는 남방처럼 많지 않고 다양하지도 않다. 예컨대 제목의 燕臺는 대표적인 북방이며, 원문의 '濟水'와 '黃河' 또한 북방이다. 시 속에 등장하는 남방을 실제 지역으로 이해한다면, 시점상 화자가 남방에 있는 것인지, 북방에 있는 것인지 통일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 시가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적 인접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낮은 풍경을 불러일으킬 뿐 어떤 관념을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효용론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이 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공간적 배경에 있어서 특히 '하늘'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海闊天翻迷處所, 바다는 끝없고 하늘은 뒤집혀 있을 곳 잃었네.

研丹擘石天不知, 단사를 연마하고 돌을 쪼갬다 한들 하늘이 몰라주니
願得天牢鑰冤魄, 원컨대 천뇌를 얻어 원혼을 가두어 두고저. ((春))

綾扇喚風聞闔天, 비단 부채가 천상의 바람 부르는 듯. ((夏))

月浪衡天天宇溼, 달빛이 하늘에 가로 퍼지니 온 천하가 젖고, ((秋))

天東日出天西下,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冬))

하늘을 직접 언급한 것 이외에도 하늘과 관련이 있는 달, 별, 은하수 등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시어가 출현 빈도수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시어가

시에서 虛辭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 이를 통해 인간의 모든 표상은 지향성을 갖는다는 암스트롱의 말처럼 이 시에 드러난 '천상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²⁸⁾ 이는 화자가 갈망하는 대상인 하늘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원칙과 쾌락원칙의 대립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는 즉 환상성을 매개로 시간성과 공간성의 해체를 시도하고 천상 지향성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증명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대시>에서 화자가 갈망하는 대상은 남방과 북방에 떨어져 있는 연인이 아닌, 하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늘(天)'과 동사 '뒤집어지다(翻)'의 조합은 이 시를 애정시로 볼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라 하겠다.

이 외에 '바다(海)'라는 시어 또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하늘'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헤매거나 길을 잃게 되는 장소로서 사용되었다.²⁹⁾ 따라서 하늘이나 바다, 남과 북의 공간적인 배경은 화자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공간의 모호한 경계는 환상성에 힘을 실어 줄 뿐만 아니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그럴 수 없는 현실간의 대립 또한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이미지의 다중성

<연대시>에 '환상성'을 더해주는 세 번째 요소로 이미지의 다중성을 들 수 있겠다. 먼저 일반적인 애정시에서는 '여성적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 그 시어 또한 '여성적'인 것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 시에는 미녀, 기녀, 선녀 등의 여성적 이미지와 天翻, 蜀魂, 海闊 등의 남성적 이미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8) 이상은 시에서의 '천상 지향성'은 미당 서정주의 시에서와 같이 공격의 대상이나, 북중의 대상으로서, 죄의식의 해소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갈망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늘이다(김점용, 앞의 책, 323쪽).

29) '바다는 끝없고 하늘은 뒤집혀 있을 곳 잃었네(海闊天翻迷處所)', '그윽한 빛이 되어 서해로 사라진다(化作幽光入西海)' 등.

蜜房羽客類芳心,
治葉倡條徧相識.

향기로운 벌꿀 애뜻한 내 맘과 같으니
꽃이 있는 곳을 알겠지. ((春))

綾扇喚風闐闐天,
輕帷翠幕波瀾旋.

비단 부채가 천상의 바람 부르는 듯
연한 비취빛 휘장이 물결 감아 도는 듯. ((夏))

이상의 구절이 여성을 읊은 것이거나, 적어도 여성적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를 제기할 독자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이하의 구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할 것이다.

愁將鐵網罥珊瑚,
海闊天翻迷處所.

시름겨워 철망으로 산호를 कै고자 하나,
바다는 끝없고 하늘은 뒤집혀 있을 곳 잃었네. ((春))

濁水清波何異源?
濟河水清黃河渾.

탁한 물 맑은 물결 어찌 근원이 다른가?
제하수는 맑고 황하수는 혼탁하니. ((夏))

堪悲小苑作長道,
玉樹未憐亡國人.

작은 정원이 대로가 된 것은 슬퍼할 만하지만
옥수후정화의 나라 잃은 사람은 연민하지 않는다. ((秋))

앞서 언급했듯이 하늘이 뒤집혀 머물 곳을 잃었다는 것에서 '여성적 화자'는 느낄 수 없다. 또 맑은 물과 탁한 물의 근원이 다르다고 한 점, 나라 잃은 사람을 연민하는 주체는 여성 화자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애정시라고 하기에는 그 주체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상반되는 이미지들을 한데 모아놓음으로써 시적 '환상성'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희망과 절망적 이미지가 순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공간의 한계에서 오는 희망과 절망이다.

直教銀漢墮懷中,
未遣星妃鑣來去,
濁水清波何異源?

곧장 은하수를 내 품 속에 떨어뜨려
직녀성이 오래도록 오가게 하지 말았으면,
탁한 물 맑은 물결 어찌 근원이 다른가?

濟河水清黃河渾。	제하수는 맑고 황하수는 혼탁하니
安得薄霧起細縵。	어찌 薄霧 속에서 담황색치마 입을 그대 일으켜
手接雲輶呼太君?	손수 구름수레를 영접하고 나 그대를 부를 수 있을까?

이상은 [夏]의 후반부이다. 잡기 어려운 빛이나 은하수와 같이 곁에 두고 싶지만 둘 수 없는 대상을 오래도록 곁에 두려 하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가 곧 현실로 돌아와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연대시>는 희망과 절망, 체념의 이미지가 순환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환상'적이고 몽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 희망과 절망적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이상의 다른 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비를 통해 현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상은 시의 '몽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도교의 환상세계

네 번째 요소는 시에 드러난 도교적 사상이다. 唐代의 '환상'적 전기소설이 사상적으로 유교가 쇠퇴하고 도교가 정치적 지지를 얻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이, 시 또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도교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꿈'을 들 수 있다. 꿈이라는 표지(標識)는 환상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이다.³⁰⁾

醉起微陽若初曙。	취기에 일어나니 저녁 해는 동트는 서광인 듯,
映簾夢斷聞殘語。	주렴을 비추니 꿈에서 깨어 꿈속의 말 들리는 듯. ([春])
簾鉤鸚鵡夜驚霜。	부리가 구부러진 앵무새가 밤 서리에 놀라
喚起南雲繞雲夢。	남쪽 구름이 운몽 휘감는 것을 깨운다. ([秋])

30) 강민경,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주), 2007, 197쪽.

꿈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화자가 그리는 유토피아가 펼쳐진 곳이라 할 수 있다. 또 화자가 그리는 꿈 속의 세계는 솟용과 암봉황이 함께 하는 곳이다. 하지만 화자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여러 번 꿈에서 깨어 현실의 절망감을 깊이 느낀다.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함만을 안겨주는 현실 세계로 인해 화자는 이 천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사계절을 나누어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우주 현상이 모두 변함 없는 도교의 '선계'를 꿈꾼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唐代 애정류 전기에서 공간이 태초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려는 인간의 원형 심리와 연결되어 仙境이 등장하는 것과³¹⁾ 같은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꿈 속 세계는 화자로 하여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꿈이라는 표지 이외에, 환상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도교 관련 시어를 사용하거나 기녀와 관련된 시어를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安得薄霧起細縵。	어찌 薄霧 속에서 담황색치마 입을 그대 일으켜
手接雲輶呼太君?	손수 구름수레를 영접하고 나 그대를 부를 수 있을까? ([夏])
歌唇一世銜雨看。	노래하던 입술로 평생 동안 눈물 머금고 보련마는
可惜馨香手中故。	애석하도다. (서신의)아름다운 향기가 손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秋])
當時歡向掌中銷。	당시의 즐거움은 손바닥에서 사라졌거늘
桃葉桃根雙姐妹。	도엽과 도근은 한 자매였지. ([冬])

唐代에 도관의 여인을 기녀로 다루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이다. 또한 평소에 이상은은 자신의 신세를 기탁할 때 종종 신선 관련 시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³²⁾ 따라서 이 시에서 기녀와 관련된 시어만을 근거로 단순하게 실제로 화자가 그리는 대상을 기녀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근

31) 최진아,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8, 259-260쪽.
32) 馮浩, <玉谿生詩詳注補>, <海上>詩: 義山身世之感, 多託仙情艷語出之. (劉學鍇·余恕誠, 앞의 책, 628쪽에서 재인용).

거로 애정시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렇듯 <연대시>는 여러 가지 '낮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실제 눈으로 본 풍경보다는 '환상'적인 것을 눈으로 보는 듯하게 구성하여 독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낮선 요소가 결합된 구조를 이해한 후에야 <연대시>의 眞價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연대시>의 '환상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이성적인 언어로 그가 느낀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나 '이념상'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시적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낮선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연대시>에서 '낯설게 하기' 장치로 '환상성'을 꼽을 수 있다. 시적 환상의 양상은 시인마다, 작품마다 다르므로, 환상 자체를 개념적으로 보편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상'은 정신분석(심리학)에서 오는 개념으로, 정신분석에서 환상은 꿈이나 백일몽처럼 생생한 이미지와 강렬한 정서, 비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경험을 말한다.

애정시로 간주되고 있는 <연대시>는 중국의 전통적인 시에서 보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낮선 요소'로 인해 <연대시>를 애정시로 단정하고, 시의 내용을 '本事'와 연관 지어 그 작시 의도(intention)를 살피려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또 唐代에 '환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전기소설과 같은 문학 장르가 유행한 것을 본다면, 이러한 '환상'이 '시'라는 장르에서도 배제되었을 리 없었을 것이다. 이 시 외에 여러 다른 시에도 이상은은 신화적 모티프를 많이 등장시켜 환상성을 형성화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듯이, 이상은 시

속에서의 '환상성'은 결코 어색한 것이 아니다.

수잔 랭거는 현실 생활의 機構와 그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감각적 현상의 요소를 분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환상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³³⁾ 다시 말해 예술의 본질은 비실용적인 데에 있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환상이라는 것이다.³⁴⁾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인 해석방법인 전기 생평주의적·이성적·효용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만당대의 '환상성'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상' 자체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환상'은 현실의 고통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탈출구이며 고통스런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³⁵⁾ 따라서 만당 초기 문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그에 대한 표출 양상을 시에 나타난 '환상'이라는 요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상은 <연대시>의 환상성을 고찰한 본고가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중국의 시를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 강민경,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주), 2007.
 紀 昀, 《玉谿生詩說》, 臺北: 藝文印書館, 197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8.
 로즈메리 잭슨(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葉嘉瑩, 《迦陵論詩叢考》, 中華書局, 2005.
 수잔 k. 랭거(박용숙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4.
 Stephen Owen, *The Late Tang*, Harvard University, 2006.
 _____, 田曉非(譯), 《他山的石頭記》,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2.
 劉學鐸·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中華書局, 2004.

33) 수잔 k. 랭거(박용숙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4, 44쪽.

34) 윤지영, 앞의 책, 58쪽.

35) 강민경, 앞의 책, 188쪽.

윤지영, 《서정과 환상-모방의 시학》, 푸른사상, 2006.
 張采田, 《玉谿生年譜會箋》, 上海古籍出版社, 1983.
 정상근, 《문예미학》, 한국문화사, 2002.
 朱鶴齡·程夢星, 《李義山詩集箋注》, 廣文書局, 1981.
 최진아,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8.
 캐서린 흠, 한창엽(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馮浩, 《玉溪生詩集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프로이드, 이규현(역),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살림, 1997.
 김준연, <李商隱 詩에 보이는 '봄' 이미지 연구>, 《中國文學》제4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6.
 정규식, <나말여초 전기문학의 환상성과 문학적 형상화-《首插石柵》과 《寶開》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20집, 동양한문학회, 2004.
 趙曉輝, <論李商隱詩歌的修辭勢態>, 西華師範大學學報, 2007.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7	2009.9.17	2009.10.5	2009.10.12	2009.10.30

< 中文提要 >

李商隱의 <燕臺詩>究竟是'愛情詩'或者反映現實的詩的問題一直在爭論。大部分學者一般認為 <燕臺詩>是無題詩的一種。因為在 <燕臺詩>裏籠罩著幻想的氣氛。但是 <燕臺詩>的真正價值不是在主題思想, 而是就在'幻想'自身。

<燕臺詩>的幻想由幾個因素來構成。第一, 詩題的模糊性。詩題的燕臺跟詩的內容毫無關涉。這就可以引起幻想。第二, 時間空間境界的模糊性。李商隱描寫四個季節不但已經擺脫中國傳統的意象, 而且不是按照時間的順序來描寫的。但是作者通過這種方法來表達的就是對歲月茫然虛度的可惜的感覺。關於空間的就是南方和北方的問題。詩題的燕臺就是北方, 不過詩裏描寫的大部分是南方的風景。但這不是實際的風景, 而是作者所想象的風景。第三, 意象的多樣性。比如關於女性的意象和男性的意象合在一起, 對未來的希望和對現實的絕望合在一起等。第四, 唐代流行的道教思想。在 <燕臺詩>裏關於道教出現的就是'夢'和跟道教直接關係的詩語。

總之, 藝術的本質在'非使用的', 為'非使用'最有效的方法就是幻想。所以只要擺脫中國傳統的傳記批評和效用論的讀詩態度, 才能發現 <燕臺詩>的真正的價值。

關鍵詞: 燕臺、幻想、詩題、模糊性、意象、道教